

빗썸, 신뢰 바탕 IPO 도전... “투명성·투자자 보호 강화”

내년 하반기 국내증시 입성 목표
수익 극대화 보다 거래역량 집중
상장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생활 밀착 제휴로 점유율 확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당장의 수익 극대화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역량에 집중할 방침이다. 빗썸은 특히 거래 투명성 강화, 고객서비스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투자자 신뢰제고 총력

빗썸은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 첫 국내증시 입성이란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수수료무료, 서비스개편, 공격적 마케팅 등의 행보가 결국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빗썸은 증시 상장이 체계를 키우는 것이 아닌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 중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20년에도 IPO를 추진했지만 가상



지난 7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운데)와 직원 대표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선언을 하고 있다. /빗썸

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빗썸은 IPO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운영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아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한국거래소(KRX)는 영업의 지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관리 등의 심사를 하게 된다.

즉, 빗썸의 대주주 리스크(경영 투명성), 복잡한 지배구조(경영 안정성)와 영업 및 재무상황(기업의 계속성)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빗썸은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를 넘어, 투자자 보호 활동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회사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감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춘 상태다. 각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금융기관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심도 있는 거래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19일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센터와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해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객 니즈 충족 서비스·마케팅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보다 높아지면서 빗썸은 산업군과의 활발한 제휴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고 있다.

빗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가운데 처음으로 식음료(F&B) 업체들과 생활 밀착형 제휴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5월 이마트 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다. 출시 후 고객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판매 초기 3주 동안 준비된 3만개가 완판됐다. 이후 CU,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푸레쥬르와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 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다시 이마트24협어해 선보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이 출시 12일 만에 완판되면서 '비트코인 도시락'에 이은 두 번째 완판 달성했다.

빗썸은 공격적인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빗썸의 점유율은 23%를 기록했지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한 10월에는 35%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 5~6일에는 점유율 40%를 돌파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의 성과가 나타났다.

빗썸 관계자는 "최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저 수수료, 멀티체인 지원, 입출금 UI 개편 등 서비스를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과 이벤트 역시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실상 연임 불가

우리금융·은행 압수수색 이틀째
조 은행장,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

조병규 우리은행장의(사진)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현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은행장 취임 이후 불법적



대출이 자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우리금융지주 사무실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날이 처음이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내년에 정기 검사에 착수하려던 일정을 올해로 앞당긴 데 이어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고강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금감원의 쌍끌이 압박에 조병규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연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행장은 "저는 모르죠"라고 답변했다. 연임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하지만 조 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이사회도 이번을 피의자 신분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비공개로 열고 차기 행장 후보 선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리스트(1차 후보군)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 행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인 오는 30일까지 차기 행장 후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숏리스트(최종 후보군) 작업에 돌입해 오는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연임을 강행한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도박"이라며 "이번주 정기이사회에서 숏리스트를 공개해 남은 2주 동안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아크로 베스티뉴'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 특공 경쟁률 2대 1

경기권 최초 아크로 브랜드 적용
전용 84㎡ 최고가 기준 15.7억

경기도에서 서울 주요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로 이목을 끌었던 '아크로 베스티뉴'의 특별공급 경쟁률이 2대 1을 웃돌았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서면서 후보양에 역세권,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2.4대로 집계됐다. 179세대 모집에 총 429명이 접수했다. 주택형별로는 59㎡에 청약이 많이 몰렸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안양 호계온천재 개발사업이다. 지상 37층, 10개 동으로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91가구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을 지하로 연결한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평촌 학

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가 경기권 최초로 적용됐다.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다는 분위기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다.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고, 74㎡는 14억290만원이다.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입주한 '평촌트리디아'가 올해 8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2023년 입주한 '평촌센텀퍼스트'가 11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2021년 입주한 '평촌버나인퍼스트'는 최고가가 10억5000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프레스티어자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275만원으로 과천 역대 최고가였지만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며 "아크로 베스티뉴는 빠른 입주도 가능해 상급지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는 오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소상공인·中소지원 확대 나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대상 예금 및 대출 금리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소상공인 출신

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자 일자리 매칭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등 다양한 ESG·상생금융 사업들에 대해 상호 협업한다.

현재 신한은행은 미래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본부장급 직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 파견해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금융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금융상품 및 보증서대출신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기업에게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